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형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필리핀대학마닐라(UPM)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됩니다.</p> <p>숙소는 3인 1실이고 책상, 침대, 수납장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면대는 화장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복도식이고 문을 열면 큰 나무가 바로 보여서 편안한 분위기입니다.</p>
수업	<p>첫 날 테스트를 본 뒤 약 5명 씩 그룹을 나눕니다. 8시에 1교시가 시작되고 50분 수업을 합니다. 12시~1시까지 점심을 먹고 5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1:1수업은 3번, 그룹수업은 5번 씩 있었습니다.</p> <p>선생님께서는 남자·여자분 모두 계십니다. 모두 밝으시고 마주치면 항상 인사해주십니다. 선생님의 말이 빠른 것 같을 때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느린 속도로 말씀해 주십니다.</p> <p>수업은 말하기, 멀티(광고, 뮤직비디오 제작), 단어, 듣기, 문법, 패턴, 발음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특색이 있어서 재밌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수업준비는 여기서 주는 책과 필기구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과제는 간단한 단어테스트, 문장 만들기 등이 있는데 수업 때 잘 듣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식입니다. 부담 없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p>
Activity	<p>비치, 고아원, 리조트&비치, 요트 등 활동을 했습니다.</p> <p>준비물은 수영복(꼭 챙기시는게 좋아요!), 선글라스(햇볕이 뜨거워요!), 물안경(요트타고 바다 들어갈 때 물 속 보고 싶은 분은 챙기세요.) 등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갈 때는 눈에 띄는 장식품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아원에 기부금을 냅니다.</p> <p>저희는 안바야리조트에 가서 그 안에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사비로 밥을 먹었습니다. 또 사비로 비치에서 바나나보트 등을 탈 수 있습니다.</p> <p>요트를 타고 바다 안쪽으로 꽤 많이 들어갑니다. 배 멀미 심하신 분은 미리 약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조끼를 착용하고 바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매우 맑고 짭니다. 씻을 공간은 화장실 안쪽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놀고 일찍 나와 씻으면 되지만 대부분 숙소에서 와서 씻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저희가 갔을 때는 건기여서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거의 하늘이 맑았고 햇볕이 뜨겁습니다. 가끔은 비가 소나기처럼 올 때도 있지만 우산은 딱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p> <p>햇빛이 강하다 보니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은 반팔, 얇은 가디건, 얇은 긴 티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p>
안전	<p>처음엔 매고 있는 가방도 가로채가진 않을까 매우 걱정했는데 나중엔 그냥 편하게 다닐 정도로 저희가 머무르는 곳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마닐라 대학에 견학 갈 때는 소지품을 꼭 잡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 뿐더러 도난을 많이 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어학원과 함께 있는 기숙사에서 머물렀습니다. 통금은 밤 10시까지이고 금·토만 2시까지입니다. 어학원 2층에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고 바로 앞이 FB(필리핀 버스), 택시 탈 수 있는 곳입니다. 나가는 곳 앞에 친절하고 착하시고 귀여우신 가드가 항상 있는데 가드에게 부탁해서 콜택시도 부를 수 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필리핀 분께서 한식을 만들어주시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처음엔 밥알도 너무 다르고 배가 차지 않는 기분이었는데 가끔 그렇게 나오고 점심이 특히 푸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육볶음, 찜, 된장국, 수박, 사과, 부대찌개, 비빔밥, 미역국, 망고 등이 나옵니다. 아침엔 빵, 죽, 계란후라이, 과일 등 간단히 나옵니다.</p>
교통	<p>FB는 13페소(한국돈 325원)이고 노란색버스 교통수단인 지프니는 7페소(135원)정도 합니다. 처음에만 낯설지 다 잘 탈 수 있게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및 활동비	300,000원	물, 과자, 기념품 등(저는 절약하면서 소비했습니다.)
합계	1,035,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하루 일과를 대부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어서 춥습니다. 후드집업이나 긴 남방을 꼭 챙기세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에어컨을 틀고 수업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후드집업을 입어도 전혀 덥지 않습니다. 수건도 챙기세요. 돈은 넉넉히 환전 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가가 워낙 싸서 한국에서 비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나 졸업식 때 선생님들께서 선물과 편지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드리고 싶은 간단한 선물과 편지를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안에서 편하게 신을 슬리퍼 챙기세요! 화장실용 슬리퍼와 발 닦을 수건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영어 정말 못하고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 모든 어학연수 과정을 끝낸 뒤 영어에 익숙해졌고 그 외에도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땐 정말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듣다보니 익숙해지고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세 그룹 정도로 나뉘어 아이들과 놀아주고 다 함께 게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금방 친해져서 헤어질 때 마음이 아프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함께 온 선배, 동기들과 모두 친해져서 즐거웠습니다. 어학원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바비큐파티를 하고 함께 수영장에서 놀면 재밌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 선생님들께서 정이 많고 착하십니다. 졸업식 때 우시는 분이 있으실 정도로, 한 달 동안 정말 좋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토익공부와 듣기, 말하기 연습을 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숙소 앞



지프니



맛있는 급식



마닐라대학 방문



안바야비치&리조트



요트